

# 2015 서울시 9급

## 가답안 및 오답해설

1	2	3	4	5
③	④	②	①	③
6	7	8	9	10
①	④	③	④	③
11	12	13	14	15
①	②	②	③	①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②	②

### 1. 정답 : ③

- 문제의 밑줄 친 국왕은 5세기 고구려 장수왕에 해당한다.
- ㄴ. 장수왕은 427년 평양천도를 단행하였다.
  - ㄹ.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433년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다.
  - ㄱ. 6세기 백제의 성왕 대의 상황에 해당한다.
  - ㄷ. 전기 가야연맹 당시, 금관가야는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400년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월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후 금관가야의 세력은 위축되고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연맹이 출범하였다.

### 2. 정답 : ④

- ④ 비변사 등록은 국보 제 152호로 조선 후기 국정을 총괄한 비변사의 활동을 적은 기록물이다. 그러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이 아니다.
- ①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로 2013년 6월 새마을 운동 기록물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 ② 일성록은 조선 후기 국왕의 동정 및 국정의 제반 운영 사항을 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연대기이다. 1710년(영조 36)부터 1910년(융희 4)까지 151년 간의 국정 운영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2011년 5월 25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③ 동의보감은 어의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을 하나로 모아 편찬에 착수하여 1611년(광해군3)에 완성하고 1613년(광해군5)에 간행한 의학서적이다. 현재 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 의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9년 7월 31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3. 정답 : ②

- ② 발해 무왕(대무예) 대에는 흑수말갈 사건과 관련하여 장문휴의 등주 정벌이 단행되었다. 이에 신라는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하려 하였다.
- ① 발해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 ③ 발해 문왕 대에는 신라도라는 상설 교통로가 개설되어 신라와의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 ④ 장보고는 흥덕왕 대 귀국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 4. 정답 : ①

- 문제의 밑줄 친 왕은 고려 광종에 해당한다.
- ① 광종은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 ②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12목을 중심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③ 고려 태조는 호족 통제책의 일환으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를 마련하였다.
  - ④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권문세족을 견제하려 하였다.

### 5. 정답 : ③

- 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더불어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에 해당한다. 특히 이 탑은 백제 멸망 직후 1층 탑신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대당평백제국비명을 새겨 ‘평제탑’으로도 알려져 있다.
- ㄷ. 창왕명석조사리감은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백제 위덕왕(창왕) 13년 (567)에 그의 누이가 부왕인 성왕의 명복을 빌기위해 절을 발원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능산리 사지는 위덕왕이 성왕을 위해 세운 능사(陵寺)였음을 알게되었다.

ㄱ. 백률사는 528년(법흥왕 15) 창건된 절로 신라 하대인 817년(현덕왕 9)에는 불교공인을 위해 순교했던 이차돈을 추모하는 석당이 건립되었다.

ㄹ.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신라 중대인 720년(성덕왕 19)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8각 석등에 해당한다.

## 6. 정답 : ①

문제의 ⑦은 조선 광해군 대 시행되었던 대동법(1608)에 해당한다.

① 대동법은 집집마다 토산물이나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던 방식을 소유한 토지의 면적(결수)에 따라 쌀 12두,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차등있게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이는 곧 공납의 전세화를 의미한다.

② 영조 대 시행된 균역법(1750)에 대한 설명이다. 균역법은 양민들이 매년 2필씩 납부하던 군포를 1필로 경감시켜 주는 제도였다.

③ 인조 대 시행된 영정법(1635)에 대한 설명이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는 종래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④ 세종 대 제정된 공법(貢法, 1444)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당시 세종은 전국 18만여 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이 법을 제정하였다.

## 7. 정답 : ④

문제에 제시된 사건은 선조 대의 동서분당에 해당한다.

④ 선조 즉위 이후, 명종 대 전개된 척신정치의 청산문제와 김효원·심의겸으로 대표되는 이조전랑 문제로 인해 동서분당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림들은 정치적, 학문적 견해 차이로 동인과 서인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봉당정치를 전개해나갔다.

① 외척들의 반발로 인해 훈구와 사림이 제거된 사건은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을사사화와 관련이 있다. ②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봉당은 서인으로 여기에는 이이와 성훈의 문인들이 주로 가세하였다. 서경덕, 이황, 조식의 문인들이 가세한 것은 김효원을 중심으로 했던 동인에 해당한다. ③ 이이와 성훈의 문인들은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인에 가세하였다.

## 8. 정답 : ③

문제에 제시된 시기는 원간섭기로 이 시기의 지배층인 ⑦은 권문세족에 해당한다.

②, ③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함으로써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 하려 하였다.

①, ④ 권문세족은 대개 친원파로 고려 중기의 문벌귀족 출신, 무신 집권기에 대두한 가문,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한 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도평의사사, 밀직사, 첨의부 등의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고려후기에 관료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9. 정답 : ④

세종 대 실시된 의정부서사제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세종은 태종 대 시행된 6조 직계제를 의정부서사제로 변경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①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킨 제도에 해당 한다. 왕권 강화와 관련 있는 것은 6조 직계제 해당한다.

② 태종과 세조가 시행한 것은 6조 직계제에 해당한다.

③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의 서술을 통해 재상총제제를 주장하였다. 이는 재상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권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6조의 업무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6조 직계제에 대한 것으로 왕권 강화와 관련된다.

## 10. 정답 : ③

문제의 밑줄 친 황사영 백서 사건은 순조 대 발생한 신유박해(1801)와 관련한 사건이다. 신유박해 당시 황사영은 북경 주교에게 명주에 쓴 청원서인 백서(帛書)를 보냈다. 그러나 이 백서가 관아에 압수됨으로써 황사영은 대역죄인으로 능치처사 되었다.

③ 신유박해는 순조 즉위 후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반대파를 제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이승훈·정약종 등 남인 학자와 청나라 신부 주문모 등이 처형되었고, 정약전·정약용 등이 유배되었다.

① 윤지충과 권상연에 의한 신주 소각 사건(진산 사건)으로 발생한 박해는 정조 대의 신해박해(1791)에 해당한다.

② 『상재상서』는 1839년(현종 5) 정약종의 아들인 정하상

이 당시 우의정 이지연에게 가톨릭 교리의 정당성을 알리려고 쓴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건은 기해박해에 해당한다. ④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발생한 천주교 박해는 병인박해(1866)로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천주교도 수 천명이 희생된 최대의 박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후 병인양요(1866)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11.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단군신화로 이것이 기록된 대표적인 역사서는 일연의 『삼국유사』(충렬왕 7, 1281)이다.

- ① 『삼국유사』는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③ 김부식의 『삼국사기』(인종 23, 1145)에 대한 내용이다. 『삼국사기』의 구성은 '본기', '연표', '지', '열전'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삼국사기』는 김부식 등 11명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이다.
- ④ 무신정권기 교종의 승려인 각훈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해동고승전』(고종 2년, 1215)에 대한 내용이다.

#### 12. 정답 : ②

② 『곽우록』은 이익이 국가적 당면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서적이다.

- ① 유형원의 『반계수록』은 통치 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저술한 것으로 백과사전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닌 서적은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이 있다.
- ③ 박지원이 청에 다녀와 썼던 기행문은 『열하일기』이다. 『연기』(담헌연기)는 실학자 홍대용이 청나라에서 견문한 바를 기록한 책이다.
- ④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강목법을 가미한 편년체로,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삼국-고려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서술된 역사서이다.

#### 13. 정답 : ②

- ⑤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에 대한 내용이다. ③ 제2차 영·일동맹(1905. 8)에 대한 내용이다. ⑦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 9)에 대한 내용이다. ⑨ 을사조약(제 2차 한·일 협약, 1905. 11)에 대한 내용이다.

#### 1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1940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 창설된 한국광복군에 대한 문제이다.

- ③ 중국 화북전선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 것은 조선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이다.
- ①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 충칭 본대를 비롯한 각지의 병력이 합류하면서, 보다 강화된 정식 군대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②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설립되었지만, 중국은 광복군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은 중국 군사위원회에 사실상 예속되어 중국군과 함께 활동한 것이다. ④ 한국광복군은 미국군과 합동 작전(1944)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전략 정보처(OSS) 소속으로첩보를 위한 국내 진입 작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15.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⑦은 민족 문화의 근본을 세종으로 보고, 국제 관계를 다룬 『대미관계 50년사』(또는 『한미 50년사』, 1934)의 저서 내용으로 보아 문일평임을 알 수 있다. 문일평은 『대미관계 50년사』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비판하였고, 한편으로는 민족 문화의 근본으로 세종을 대표자로 하는 '조선심' 또는 '조선 사상'을 강조하였다.

- ① 문일평은 1930년대 정인보, 안재홍 등과 더불어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일제 강점기 청구학회의 한국사 왜곡에 반발하여 설립된 진단학회는 조윤제, 이병도 등이 중심이었다. 문일평은 진단학회 회원이 아니었다.
- ③ 백남운의 사회 경제 사학에 대한 설명이다.
- ④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다. 박은식은 민족의 근본을 '흔(魂)'으로 파악하여, 흔을 담은 민족사를 강조하였다.

## 16.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⑦은 일제강점기 실시된 산미증식계획(1920~1933)에 해당한다.

④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면서 종자 개량비, 수리 시설 개선비용 등을 실제 경작을 담당하는 소작농에게 전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작농의 부담이 커지면서 생활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러나 대지주는 오히려 큰 이익을 얻게 되었고, 소작농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소작료를 인상하면서, 빠르게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결국 대부분이 소작 혹은 자·소작농이었던 농민이 기아 상태에 놓여 몰락하게 되었으며 식민 지주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바뀌어 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① 산미 증식 계획은 무리한 계획으로 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일제의 쌀 수탈은 계획대로 시행되면서 한국 내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② 산미 증식 계획은 증산량을 초과하는 수탈로 인하여 쌀이 크게 부족하게 되자 일제는 만주에서 조·콩·수수 등의 잡곡을 들여와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 하였다. ③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하여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20년대에 0.7석이었던 것 이 1932년에는 0.37석으로 줄어들었다.

## 17.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들’은 김옥균, 홍영식 등으로 대표되는 개화당(급진 개화파)이며, 갑신정변 당시 이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찾는 문제이다.

ㄷ. 개화당 정부의 14개조의 개혁 정령 중 혜상공국의 혁파는 제9조의 내용으로 봉건적 특권 상업 폐지를 의미한다. ㄹ. 개화당 정부의 14개조의 개혁 정령 중 14조의 내용으로 개화당이 입헌군주제의 정치체제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ㄱ.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의 내용이다.  
ㄴ.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 사이에 조선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침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시기를 즈음하여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청의 지나친 간섭으로 반청 성향을 보이던 조선 정부에 접근하여 조선과 밀약을 체결하고 내정에 관여하려 했으나 청의 압력으로 실패했다(1886. 1)

## 18. 정답 : ②

제시된 내용의 읊마사변은 음력 1895년 8월 20일(양. 1895. 10. 8), 아관파천은 1896년 2월 11일, 대한제국의 수립은 1897년 10월 12일이다. 따라서 아관파천과 대한제국 수립 사이에 들어갈 사건으로는 1896년 7월의 ② 독립협회 결성이다.

① 단발령 공포는 음력 1895년 11월 15일(양. 1895. 12. 30)이며, ③ 흥법 14조 반포는 음력 1894년 11월 21일(양. 1894. 12. 17), ④ 춘생문 사건은 음력 1895년 10월 12일(양. 1895. 11. 28)에 일어났다.

## 19.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김규식과 여운형 등의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7원칙(1946.10)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좌우 합작 7원칙 2항에는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원칙이 게재되어 있다. ① 좌우합작 7원칙에는 외국군대의 철수라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좌우합작 7원칙에서 토지 개혁은 몰수, 유(有)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의 원칙이 합의되었다. ④ 좌우합작 7원칙에서는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의해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원칙이 합의되었다. UN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20.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4.19 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으로 이후 이승만 정권은 이로 인해 붕괴되고 허정과도내각이 수립되었다.

② 허정과도내각은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1960년 7월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재선거를 통해 장면정부가 수립되었다.

①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는 정권 타도 투쟁으로 변화하였고,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③ 이승만 정권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독재 정치 강화와 정권의 연장

을 기도하면서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④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는 마산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승만 정권은 마산 사건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발표하여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였다.